

목어

소탐대실



마음이 심란하면 불자가 아니라도 절을 찾는다. 절이 위치해 있는 곳이 대개 산중이거나 도심이라도 조용한 환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답답해 지는 것이 어찌 절의 위치만의 영향이라. 부처님의 말씀이 있고 이를 전해 주는 스님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몸이나 마음이 불편하면 절에 가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절은 종교적인 도량으로서의 의미만 지니는 곳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평정하게 해 주는 복합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신심과는 무관하게 절을 관광 삼아 찾는 이들도 없지 않다. 하지만 불거리를 찾아 절을 가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찾는 사람들의 마음 밑바탕에 있는 무의식적인 동기가 절을 통해 평정된 마음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공양시간에 맞추어 절을 찾으면 누구에게나 공양을 들고 가라고 한다.

사소한 지적일지 모르겠으나 좀 달라졌으면 하는 것이 있다. 절 입구나 절 경내에는 대부분 커피 자판기가 있다. 커피에 익숙해져 있는 방문객들은 자판기를 많이 이용한다.

현재 자판기 커피 값을 보면 대개 400~500원 정도다. 이런 생각을 해 본다. 커피 자판기가 기왕 절 경내에 있어야 한다면 그 값을 100원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절의 경계가 대부분 신자들의 보시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멀리 절을 찾아온 손님이나 방문객들을 위해 차를 따로 한잔 대접하지는 못할지언정 선풍기나 커피를 뽑아 먹기에는 400~500원의 값은 시중의 값과 동일하거나 비싸다. 100원 동전 하나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야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냥 드려도 되겠지만 자판기 속성상 동전을 넣어야 나오기 때문에 100원짜리 하나가 적당할 것 같다. 원래 사찰에 즐비한 자판기는 산사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값이 400~500원이면 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고 가뭇이 입맛 따라 커피 한잔 가볍게 뽑아 먹고 절을 나설 수 있다면 그 절은 이미 중생의 마음을 보듬는 절이다. 작은 이익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이 아닐까 해서 하는 말이다.

이근후(불교상담개발원장)

월드컵 때문에 온 나라가 한달째 '적·화·야·육(赤化野肉)'으로 불타고 있다. 18일 이탈리아와의 경기는 적화야육을 달성하는 글자 그대로 대회를 전이었다. 태극전사들은 목숨건 전투

가 되라'고 선포하는 이들. 박정희, 전두환 시절 같았으면 모두 반공법, 보안법으로 체포되어 감옥으로 갔어야 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착하고, 무해한(harmless) 빨갱이'로 칭송받고 있다. 베를린 봉쇄 당시 49일간의 베를린 공수작전, 수천 수만의 공산주의 이념가들과 그들의 저작들, 쿠바 봉쇄, 그리고 휴전선... 이 모든 것은 이 데올로기의 철용성이 얼마나 견고한

다. 이런 비실제적인 계절에 만나는 '순수 환희'를 '애국심'과 연결지려는 아주 불순한 시도가 있다. 축구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룩하고, 국가발전의 전기로 삼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차라리 '고스톱을 통한 국가발전'을 꾀하는 것이 더 역동적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때와 장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함께 즐기는 국민스포츠이기 때문이다.

지나친 표현일까. 월드컵이 끝난 뒤 서포터즈들은 아무도 응원하지 않는 조기축구 모임에 수백의 응원단을 보내고, 심 수명의 학부모들만 응원하는 초등학교 축구 선수권 대회장에 모일까? 설부른 예단인지는 몰라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월드컵 기간 중에 치러진 6·13 지방선거에는 유권자의 절반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집 관리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구의회 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진짜 애국심은 축구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민 자치에 적극 나서

불자 세상보기



구승희 동국대 교수 윤리학

를 벌였고, 드디어 승리했다. 전 세계 8000만 한국인은 하룻밤 기꺼이 '빨갱이 Be the Reds'가 되었다. 전쟁이 강자의 이성이 약자의 이성을 억압하는 인정투쟁이라면, 축구는 전쟁의 전형

'축제의 여인'은 떠나고...

만의 사람들이 가슴마다 '빨갱이가 되세요(Be the Reds)'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 티셔츠를 입고 제2의 애국가 '오! 필승 코리아'를 외쳤다. '붉은 악마 응원단'이 되라(Be a Red Devil)는 의미겠지만, 'Be the Reds'는 러시아 혁명기에 적군이 백군을 선무공작(宣傳工作)할 때 사용하던 용어로, 그 후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결합이 있는 색깔이 됐다. 백주(白晝)에 공공연하게 '빨갱이

가들 보여주는 사색이다. 하지만 지난 며칠동안 광화문에 모인 '무해한 빨갱이들'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확인했다.

월드컵은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다. 축제가 즐거운 것은 그것이 계층, 성별, 이데올로기를 초월하기 때문에, 온갖 금기, 억압, 감시로부터 해방되는 '한정적 무규범'의 상태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축제를 '제5의 계절'이라 부른

'대·한국'을 외치는 서포터즈는 80여년 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사람들, 15년 전 시청광장에 모여 '독재타도'를 외치던 사람들의 절박하고 처절한 외침과는 전혀 다르다. 이는 국민의 단결된 힘도 아니고, 성숙된 문화시민 의식도 아니며, 축구를 통한 공동체 의식의 고양은 더욱 아니다. 일상의 억압에 주눅 들고, 축제와 놀이에 굶주린 도회의 소시민들의 '집단지 패닉(공황)'일 뿐이라고 한다면

본래(本來)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코리아팀이 월드컵 8강에 오른 날, 절마당도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 들었다. 18일 세계 최강 이탈리아에 기적 같은 승리를 낚는 순간 스님과 불자들은

한국축구 '쾌거'...절마당도 환호

순간순간 탄식·환호 반복

○...플란드르전과 포르투갈전에 이어 이탈리아전까지도 대웅전 앞마당에 설치된 대형스크린을 통해 조제사에서 경기를 시청하던 스님과 신도 500여명은 한국팀의 골든골이 터지는 순간 서로 얼싸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

강원과 선방, 종무소 등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양산 통도사 등 전국 사찰의 스님들과 김포사찰 본관 4층 대강당에 설치된 대형스크린을 통해 경기를 지켜보던 중앙승가대 200여 학인들도 경기 순간순간마다 탄식과 환호를 반복하며 한국팀을 응원했다.

진각종에서는 서울 성북구 종인원 잔디마당에 대형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호암 통리원장을 비롯, 종무원과 지역주민 100여명이 함께 한국팀을 응원했다.

불자선수들 눈부신 활약

○...한국팀이 강호들과의 경기에서 차례로 승리를 거두며 선전한 데에는 설기현, 박지성, 홍명보, 김남일, 최진철 등 불자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셨다. 한국의 허바우두 설기현(23)은 이탈리아와의 16강전 경기종료 직전, 황금같은 동점골로 8강행의 주역이 됐고, '만능 멀티플레이어' 박지성(21)은 14



설기현선수(앞)가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서 동점골을 터트린후 기뻐하고 있다.



박지성 선수의 어머니 장명자 씨가 화성 용주사에서 아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환호하고 있다.

일 환상적인 논스톱 결승골을 터트려 포르투갈을 일찌감치 리스본으로 돌려보냈다. 10일 달구벌에서 열린 대 미국전에서 잡초의 근성을 보인 이을용(28)은 단 한번의 절묘한 어스시트로 벵랑 끝의 대표팀을 살려냈다. 대표팀의 정신적 지주 홍명보(34)와 김남일(26), 최진철(32)은 함께 환상의 활백 수비라인을 구축해 세계 최강팀의 막강 화력을 잠재웠다. 이들 불자선수들은 성실한 플레이

이제지 환호성을 지르며 감격을 누렸다. 불자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불심 투혼'을 발휘했고, 그 기쁨들은 승리의 영광을 부처님 가피로 돌렸다.

갓바위서 선전기도

설기현 어머니 박지성 어머니 용주사서 승리기원

설기현 선수의 어머니 김명자씨는 이탈리아전이 끝난 뒤 눈물을 흘리며 합장을 했다. 대구 갓바위에서 기도를 올리며 한국의 8강 진출과 아들의 선전을 기원했던 김씨는 "기현이가 국민들의 오랜 염원을 푸는데 한 몫을 한 것이 대견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박지성 선수의 어머니 장명자씨(43)는 이탈리아전을 앞두고 화성 용주사를 찾아 한국팀의 승리를 기원했다. 이탈리아전이 있기 전까지 장씨와 함께 아들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부산 범어사와 대구 동화사에서 철야기도를 올렸던 아버지 박성종씨는 "지성이야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기뻐했다.

만사의 몸으로 매일 인연 연화사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을용 선수의 아내 이숙씨는 "부처님과 국민의 염원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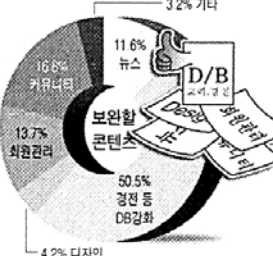
부모님과 할머니 두 형 등 여섯 식구가 모두 불자 김남일 선수 집은 언제나 뜻밖하게 '불자 가정'임을 밝히며, 한국팀과 아들의 선전을 부처님 공덕으로 돌리고 있다.

불자의 생각

불교사이트

현재 운영중인 불교관련 사이트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에 동참한 95명의 불자들이 가운데 42명(47.7%)



"경전등 DB강화 필요" 50.5%

은 불교관련 사이트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 23명(26.2%)이 보통이다. 19명(21.6%)이 낮은 편이다. 3명(3.4%)이 매우 낮다. 1명(1.1%)이 매우 높다고 응답했다.

콘텐츠 가운데 가장 보강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48명(50.5%)이 DB관리, 경전 등, 16명(16.8%)이 커뮤니티, 13명(13.7%)이 회원관리, 11명(11.6%)이 뉴스, 4명(4.2%)이 디자인, 3명(3.2%)이 기타 라고 답변했다. 임연태 기자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2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시명감 있는 포교인을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들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 21기생을 모집함
-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 불교상당론·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유식사상·경토사상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최봉수(동국대교수)·주명철(동국대교수)·오국근(동국대교수) ·장병호(동국대교수)·김상현(동국대교수)·김상영(승가대교수) ·모주스님(동국대교수)·장휘욱(동국대교수)·차차석(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법화사상·반야사상·화엄사상 불교사외국어론·불교학개론·선사상 불교미술·필교사상·포교방법론	·암도스님(전포교원장)·박 중(동산불교대교수)·문윤식(동국대교수)·권단준(동국대교수) ·보각스님(승가대교수)·권기홍(동국대교수)·최종석(동국대교수)·윤일수(문화재단위원장) ·종석스님(승가대교수)·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김호규(동국대교수)·인환스님(동국대교수)
-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불교학과(200명) (정규편(100)·주간편(50) ·동선반(50)) ·한문학과(50명) ·불교미술학과(30명) ·우리학과(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비밀번호사서 3매	2002년 6월 15일~ 2002년 8월 3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비출반)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우리출반)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동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 4. 입학일시** 2002년 8월 10일(토) 오후 5시(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org

·서울 : 보련라(조계사암) 02)733-0333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제주 : 예전수보리섬엔 064)749-4455

*특전사항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불교회관)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6교구 신도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제22대 주지로
당선되신 진각스님을 중심으로 6교구 불교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불기 2546년 6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신도회
회장 윤석관 합장